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2 호

2011년 10 월 1 일 발행

발행인 본부장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무국장 사제 나카무라 준



2011년 8월 28일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주일예배 후 (장소: 사이토 켄 씨의 아토리에 앞)



지진 전 이소야마 교회 현관 앞



지진 전 제단

2011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본부장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무국장 사제 나카무라 준



세 형제,자매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수산나 미야케 요시미 자매, 이삭 미야케 미노루형제, 그레이스 나카소 준코 자매 장례 고별식 재해로부터 4개월 반이 지난 7월 22일, 소마시의 장례회관에서 250명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재해로 돌아가신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신도 3명의 장례고별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관계자를 포함 교회 관계자 35명도 참석했습니다.

돌아가신 3분은, 이삭 미야케 미노루 형제, 수산나 요시미 자매 부부와 딸인 그레이스 나카소 준코 자매로, 이전에 도호쿠 교구의 수련회와 교회학교 캠프가 있었던, 바다로부터 50m 정도에 있었던 『토키와 여관』에 살으셨습니다. 형제와 요시미 자매 부부는 건물과 함께 쓰나미에 쓸려 나갔고, 또 자매는 근무하고 있던 옆마을의 유치원에서 원아를 쓰나미로부터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하다 사망했습니다. 또한 가토우 히로미치 교구주교, 나카무라 준 사제(함께 걷자! 프로젝트 본부장)이 예배의 봉사에 참가, 성공회의 신지마치에 대한 지원 노력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예배였다고 느꼈습니다. 3분의 영혼에 주님의 광명과 평안을 기도 드립니다.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관리목사 사제 야곱 하야시 쿠니히데



생전의 토키와 여관



쓰나미에 의한 목욕탕 흔적과 흙벽위의 모습

이소야마성요한교회 약사

교회 주소: 후쿠시마현 소마군 신지마치 라치기자키아자 라치하마

1920년(대정 9년) 그 해 여름, 당시 아오바 여학원 원장 안나. L. 란손 여부제가 병후의 보양을 위해 이소야마(현. 신지마치)에 왔다. 그때 시작된 일요학교의 활동이 이소야마 전도의 시작이었다.

1933년(소화 8년) 란손 여사가 여전도사 나가야마 유코와 함께 이소야마에 정착했다.

1936년(소화 11년) 예배당 겸회관(현건물)신축.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라고 축성하였다. 그때 센다이 성공회에 교적이 있던 56명이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의 신도였다.

1938년(소화 13년) 란손 여부제 정년, 귀미. 후임에 자넷토. 하바도 여사가 착임.

1940년(소화 15년) 시국 악화로 귀미. 나가야마 전도사도 사직. 타쿠마 로쿠로 사제가 정착하고 활동함. 그때, 란손 여사의 활동으로, 미국 성공회로부터 현금으로 라치하마 지구의 수문이 설치되고, 많은 지역에 활동이 있었다.

사제 퇴직 후 대체로 50년간 정주 교역자가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교인들의 손에 의해 지켜져 내려왔다.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 신도 사무엘 미야케 신이치 형제의 편지

3 월 11 일, 마그네튜드 9.0, 진도 6 강에 해당하는 대지진은,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훨씬 초월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었고, 『수평선이 검은 물 벽으로 덮쳐 왔었다.』고 친구는 말했고, 방파제에 부딪쳐 날아 흩어지는 물보라는 방조림의 소나무를 넘어설 높이 만큼 높이 날아 올랐고, 해안 근처에 만들었던 현도는 달리던 트럭과 함께 떠내려 가고 말았다.

철도도 항구도 예외 없이, 역에 정차되어 있던 전차는 성냥개비를 손가락으로 꺾어 놓은 모양으로 흘러, 세운지진 110 년을 넘어 친하게 느껴져 왔던 신지역도 없어졌고, 선로는 논 가운데에 손쉽게 깔려 있었습니다.

항구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는 쓰레기로 변했고, 파도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파도를 소멸시키기 위한 블록은 높이 올라갔고, 더욱더 흘러 쓰러졌고, 굽은 줄과 밧줄로 붙들어 매어야 할 것인가, 앞 바다에 나갈 용도로 밧줄을 풀려야 할 것인가, 인기척 없는 어선은 항구로부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떠내려 왔고, 조타실에 사람이 없는 배는 멋대로 마음대로 흔들리다 전복됐다. 겨우 떠다니고 있던 배도, 진흙에 잡혀 좌초됐다. 파도에 떠내려 온 배는 3 척~4 척 헤아릴 수 있었다.

원래는 머지않아 봄 작업에 들어갈 논에 트랙터의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넓은 해수호라든지, 여전히 물려오는 파도는 2km 정도 떨어진 국도를 넘어 가옥 잔해를 운반, 밀려온 파도도 댐의 제방이 붕괴되어 한번에 흘러 나왔고, 큰 물결은 큰 물결은 한 종류의 박력을 갖고, 공포를 생각나게 하는 광경이었다. 파도가 떠나고 남긴 것은 대량의 진흙과 쓰레기, 폐기물, 자동차등이 흩어지고, 거칠고 삭막한 풍경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몸에 지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전부 떠내려 갔고, 도망치던 도중 뒤돌아보고, 바로 뒤에 파도가 뒤따라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대피하는 것이 하나, 둘, 셋, 20 까지 셀 정도의 시간이 늦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지금도 오싹합니다.

우리들은 운 좋게 대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쓰나미의 파괴력은 엄청나고, 우리들의 장소도 포함, 해안 근처에 있던 2 곳의 취락에서는 200 을 헤아리는 집을 유실시켰고, 조금 정도의 모습 밖에 없는 정도, 땅을 도려 냈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숨결도 흔적도 없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장소가 있는 산에 남겨진 파도의 흔적을 보니, 쓰나미의 세력은 30m 를 충분히 넘어서는 높이 만큼 덮쳤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을 지탱하는 알 수 없는 큰 힘과 인간을 지탱하는 사회와 치줄함을 생생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로부터 2 개월을 지나 피난소로부터 가설주택으로 옮겨, 마음에 안정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 여러분들의 격려의 말씀과 등을 밀어주는 믿음직함도 있고, 또 과분한 위문, 협력, 지원까지 받아 감사합니다. 생활도 평상으로 되돌아가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름이 무성해진 후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질녘에도 자애가 있습니다.

-대략-

추신

일본성공회 도호쿠교구 여러분에게는 거듭해서 위문, 방문까지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도호쿠교구보 『아케보노』로부터 전재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앞으로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처럼, 3 월 11 일 동일본 대재해로 인해 후쿠시마현 신지마치에 있는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는 지진과 큰 쓰나미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현재 성찬자수 11 명의 작은 교회는 그 뒤 신도 3 명의 귀중한 생명이 쓰나미에 의해 빼앗겼고, 신도 전부가 집을 잃었습니다. 원래라면 봄을 맞이하는 계절로, 논에서는 농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야마 신도 여러분들은 매년 자신들이 논에서

키운 맛있는 쌀을 『이소야마 쌀』로 센다이 교회에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교회에 헌금으로 바쳐, 수 년 전에는 성당 개수 비용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소금은 머금은 호수 논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지진 발생 시각에 멈춰선 이소야마 성 요한

그리고 대재해로 부터 2 개월을 보낸 5 월 중순, 겨우 피난소 근처의 가설주택이 건축되어, 후쿠다 초등학교에 피난하고 있던 신도 여러분을 포함 전원이 입주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생활의 노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확히 그때부터 일본성공회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활동이 시작됐고, 전국으로부터 스텝과 봉사자가 모이기 시작했고, 한층 더 후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신지마치의 가설주택 입주 가족은 대략 500 세대이지만 각 가정에 1 대씩의 청소기와 상 기부, 또 히로다 가설주택의 각 가정에는 신발장용 칼라박스가 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본성공회 관구 사무소에 모여진 동일본 대재해 긴급 구호헌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는 당분간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6 월 26 일에 가설주택에 살고 계시는 신도 집을 빌려 겨우 예배를 재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누구도 살지 않고, 제방도 없는 피해지의 산 위에있는, 더욱이 지금까지 전기와 수도 복구의 전망도 세워지지 않은 지역도 있고, 주변 부흥 계획을 보면서 교회의 부흥을 응시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신도를 포함 모든

분들과 같은 상태에서 정말 지금의 땅에 복구가 가능한가, 또는 장래 자신들이 이주를 결단 한다면, 그 지역에 함께 교회도 이주할까 등,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믿어지지 않는 피해지역에서 도둑과 방화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수리를 멈추고 있던 신도 집에 방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누구도 없는 산 위에 있는 교회의 위험도 예외는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성물등 작은 물건은 운반해 냈지만,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르간(1906 년 아메리카 카고에서 제작)과 제단, 스텐글라스등 큰 물건의 이동과 수리 보관이 급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현재, 예배는 신도 여러분의



호감에 의해 105 년전에 만들어진 리도 오르간 제공된 가설주택의 4 장 반의 방에서 드리고 있으며, 10 명이 모이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가설주택에서의 예배

있어, 가설 예배당을 다른 장소에 건축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지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와 신지마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관리목사
사제 야곱 하야시 쿠니히데

신지마치의 피해, 피해상황에 관해-현상은, 그리고 앞으로 함께-

신지마치 프로그램 담당 마쓰모토 히로시

■ 처음 ■

인구 8,172 명의 신지마치에서는 재해로 100 명이 사망하고, 10 명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외국적의 24 명의 분들은 전원 무사 합니다. 주택피해에 관해서는 오른쪽 표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진	쓰나미
전파	6 채	457 채
대규모반파	8 채	33 채
반파	38 채	38 채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는 신지마치 대피지도에 재해시 긴급대피소 지정을 받고 있어 3 월 11 일에는 20 명 정도의 근처 주민이 피난해 구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야마 교회 관계자를 포함 4 명의 존귀한 생명이 희생 되었으며, 한편, 생존이 확인된 전원이 주거를 잃어 가설 주택에서 피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 피난 생활 ■

(7월31日현재)

재해 직후, 후쿠다 초등학교(체육관) 등에는 『집단별피난생활』로 부터 신지마치 히로하다 등의 가설주택에 이동해 『세대별 피난생활』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분들은 오른쪽의 표와 같습니다. 안에 169 세대는 『원자력발전소』 근처 지역으로부터 온 피난자입니다.

가설주택 명	세대수(인원)
오카와 공원가설주택①	4 8 세대
오카와공원 가설주택②	6 3 세대 } (293 명)
※1 히로하다 가설주택	84 세대 (221 명)
사쿠다 가설주택	46 세대 (118 명)
오카와 키타하라 가설주택	23 세대 (64 명)
신바야시 가설주택	58 세대 (148 명)
마에다 가설주택	68 세대 (165 명)
스즈메즈카 가설주택	57 세대 (156 명)
간고오쿠 가설주택	126 세대 (331 명)
계 9 개소	573 세대 (1,496 명)

■ 구체적 지원활동 ■

『함께 걷자! 프로젝트·신지 프로그램』에서는 초기활동 『긴급생활지원』(식량, 모포, 카이로, 겨울 의류 등)으로부터 중·장기를 응시해

『부흥 생활지원』으로 대처하고 ※1.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신도들은 친지집에 피난한 분들을 제외하고 전원이 히로하다 가설주택에 아래에 의한 희망에 응답하는 입주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물자제공

- 전 가설주택 세대-식탁, 전기청소기
- 전 가설집합소-전기포트, 중형주전자, 책장
- 히로하다 가설주택 전세대-칼라박스, 커피, 빵, 세칸도 하베스트 식품※2
- 히로하다 가설주택 집합소- 식기, 신발장, 주택지도

◆ 교류프로그램

- 찾집
- 이벤트 참가(위령제 참가, 신지마치 여름축제 부스 점포, 신지마치 부흥계획 책정위원회 배석 등)
- 교령, 독거 세대방문
- 연대, 제휴형
 - 읍사무소, 가설주택 자치회, 가설주택 여성부, 봉사자센터, 일본 YMCA, 생활상담원, 사회복지협의회, 후쿠다 초등학교 PTA 등
- 어린이시간(히로하다 가설집합소)

◆ 나눔프로그램

신지마치 역사와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의 발자취를 배우고 은혜를 감사하고, 곤란을 함께 걷기 위해, 피해지, 피해자와 참가 봉사자를 연계해주는 활동

※2. 동지의 인체 미스와 상자가 찢어진 이유로 시장에 유통이 안되는 식품과 기업과 행정이 비축식품을 새것으로 교환하기 위해 내놓은 구 비축식품 등

신지마치와 함께 걷다

프로그램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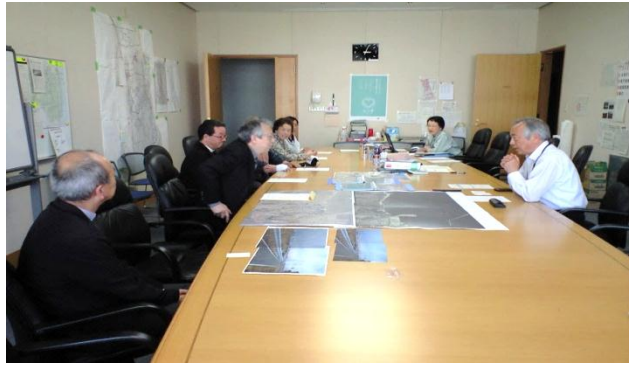
사제 프란시스 하세가와 키요즈미

도호쿠 교구 대책본부로부터 도호쿠 교구 지원실, 그리고 『함께 걷자! 프로젝트』로 매일 계속 되어 온 신지마치에 관한 활동은, 처음엔 긴급물자 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으로 이동 됐고, 피해 입고 가설 주택에 들어 가고, 다른 곳으로 피난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여러가지 생활 지원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장에서 마쓰모토씨가 쓰셨듯이, 처음 우리들은 어디든지 신도 희생자를 보고 신지마치에 대응하고 특별한 감정과 유별난 생각으로 접했다는 것이 정확한



히로다 가설주택 자치회, 여성부와 교류프로그램 협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들은 일찍부터 읍사무소와 연합해서, 마을을 가설하는 것에 대해 청취하고,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스탠스로 관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재해로부터 2 개월을 지난 지난 5 월 18 일 신지 읍사무소 2 층에 설치 된 재해 대책본부에서 가토 노리오 신지읍장과 가토 히로미치 교구주교의 직접 회담이 있었습니다. 동석한 사람은,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 신도 3 명과 이소야마 성 요한 관리목사 하야시 쿠니히데 사제,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장 나카무라 준 사제와 저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가토읍장이 피해지후부터 지금까지 전개해 온 것에 읍민과 함께 서로 도운 것과 각 단체 봉사자의 봉사에 감동하였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토 교구 주교는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더라도 양자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소중히 계승하고 이후 읍이 진행할 부흥 또 읍의 재건에 대해 함께 걸어가고



가토 읍장과의 회담

싶다는 뜻을 표명하고 견고히 협력을 나누었습니다.

신지마치 부흥계획 책정위원회는 이미 7 월 13 일과 8 월 8 일 2 회 개최되어 초안을 한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초안에 의하면, 재해 연안부에는 높이 6~7m 의 방조제를 설치, 방조제 안쪽에 공원과 우수지를 정비하고, 한층 서쪽에 있는 현재의 JR 조반센 근처에 국도, 현도를 더 높이 쌓아 올려 건설하는 구상을 기본에 근접했습니다. 주택과 시내에 더 내륙으로 이설, 쓰나미로 가족을 잃어 버렸던 지역은 피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산업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건축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가옥은 485 세대(8 월 8 일 현재). 피해자 양케이트를 보더라도, 주택 재건부지로 중시하는 포인트는 (중복대답) 69%가 『높은 지대』라고 응답, 『현재의 택지』는 44%, 『바다근처』 6%였습니다. 제 3 회 부흥계획 책정위원회는 9 월 6 일에 개최되어, 우리들도

위원회실에 방청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 부흥 구상을 보면서 지금부터 지원 내용을 검토하게 되겠고,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의 재건도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부흥 계획은 12 월까지 책정할 예정입니다.



후쿠다 초등학교의 여름축제 점포

신지프로그램 담당 스태프 소개



사제 하야시 쿠니히데 (도호쿠 교구)



마쓰모토 히로시 (추우부 교구)



카노우 미쓰코 (도쿄 교구)

프로젝트 사무국으로부터

8 월 활동(센다이권 베이스)

■ 나토리시 가설주택(하코즈카 사쿠라 단지)에 지원
지원물자 제공, 동물우리
제공(어린이를 위해),
장보기 버스운행(매주
목요일), 자치회 여름
축제에참가(고리던지기
게임, 수익금은 자치회에
기부)등



■ 이소야마 재택 피해자에 지원

지원물자 제공
(자유시장 방식),
생활지원, 생활상담등,
매주 수,목요일
방문하고 있음.

■ 장애인 지원

센다이시 사회복지법인
『마도카』(지적 장애인
누이고치 가공품
판매지원을 담당.
게센노마시, 사회복지법인
『센신가이』 히마와리(지적
장애인 작업소)생산품인
케익 판매지원 및 상담.
위 2 개소 시설은 양쪽
모두 쓰나미 피해로
시설을 잃고, 임시시설,
옛날시설에서 재개를
시작했지만, 큰 과제와
곤란을 감싸 안는 지원.



■ 외국인지원

미나미 산리쿠 시즈가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일본어 읽기, 쓰기교실』 개최, 같은
시간 『어린이 프로그램』 개최.
8 월 중 매주 월, 수요일, 『함께 여름방학 축제

하자 프로그램』 개최. 참가한 어린이 수는 12 명,
계 6 회

■ 신지마치 프로그램

주 3 회 이상, 주로 히로다 가설주택,
읍사무소등을 방문하고, 이후 지원 프로그램 책정,
교회 생활 재건에 관한 의견 교환, 부흥회의
정보수집, 등을 했다. 매월 4 주일 성찬식이
재개됐다.(가설주택의 방 한칸에서)

■ 지원물자 받아 정리

물자를 카와카미 하우스(도호쿠 교구소유 민가,
센다이 프란시스교회 근처), 루터지원
『토나리비토』가 빌린 영업 창고 일부에 쌓음.
카키노가와 학원, 센다이 조선학교로부터 재고
물자를 받음.

■ 아오바슈도간,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 숙박 받음

관계학교 하계 봉사자 캠프, 실습을
아오바슈도간,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계. 7 개교, 함께 약
140 명.

청년위원회, 각 교구
주최 캠프를 받음.



알림

■ 8 월 1 1 일 가마이시 베이스「가마이시
지원센터개설. 개소 예배를 갖고 신거점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장소는 가마이시역으로부터
5 분정도 마을 중심. 전 약기점의 점포점주택을
빌려 설치했다.

【〒026-0031 가마이시 스즈코마치 5-4 0193-55-4524】

■ 8 월 2 3 일 오나하마 베이스「성데모데
봉사자센터」설. 히타치 봉사자 센터의 후
거점으로 오나하마 성 데모데교회안에 설치.
개소 예배를 갖고 활동시작. 고베,교토,오사카
3 교구와 기타칸토교구가 운영.

스텝 칼럼



키타 칸토 교구에서 센다이 사무실에 파견된 부제 바나바 키시 모토 노조무입니다. 7월 중순의 매우 더운 시기에서 센다이에 오게 되었지만, 이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10월, 완전히 시원해진,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주로 물류 담당으로서 여러분이 보내 주신 지원 물자를 피해자의 요구에 맞게 전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치기 교회로 돌아가 주일 준비를 하면서 근무가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중,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 세대에게 별도의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서 인생과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이고, 평소 교회도 가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정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민 지원은 철두철미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야 하며, 지원하는 측의 기대와 형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지진을 계기로 세력 확대를 도모하는 종교 단체와 기업도 피해 현장에서는 보입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에 도착한 사명을 한번 더 보아 주시고, "함께 걷자!"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하고 협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9월6일)

■ 이번 여름, 성공회 관계학교, 신학교, 각교구, 관구위원회의 봉사자 캠프, 실습이 피해지에서 행해졌다. 요코하마교구, 윌리엄스 신학관, 릿교 이케부크로 중학교, 고등학교, 성공회 신학원, 고베교구, 고베쇼인여자학원, 일본성공회 청년위원회, 코란여학교, 풀학원대학, 나고야 류조단기대학, 큐슈교구, (아오바슈도관, 무로네 이용단체) 또, 개인 봉사자 참가자도 다수 오셨습니다.

■ 센다이 오피스에서는, 개인 봉사자 활동 희망자에는 일본기독교단 동북교구 피해자 지원센터 엠마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기본적으로 개인 봉사자를 받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에서는 가마이시베이스, 오나하마 베이스에서는 개인봉사자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 정보를 기다려 주세요. 센다이권 베이스에서도 이후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는, 여름이 지나고부터 봉사자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봉사자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의 활동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다이 오피스에서는 일본기독교단도호쿠교구 엠마오, 루터교회 지원 「이웃사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1호배포기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①4페이지 6월11일 기사

오 「145명」→정 「174명」

②5페이지 7월22일 기사

오 「미나미소마시」→정 「소마시」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 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022-265-5221 FAX: 022-748-5321

E-mail : walk@nssk.org

URL: http://www.nssk.org/walk/